

잔잔하게 두드린 농촌목회이야기

김 영 진(목사, 보령 시온교회)

1. 희망을 담는 농촌선교

농촌, 농민, 농촌교회, 농촌선교에 대해서 이제까지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여전히 기독교인들이 농촌과 농민, 그리고 농촌교회와 농촌선교에 대해 이야기할 때는 그것이 과연 실천적인 접근을 위한 것인지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먼저 선교에 대한 봉사가 교회에 대한 봉사에서 파생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지적과 더불어 오히려 교회에 대한 모든 봉사는 오직 선교에 이바지한다는 말을 귀담아 들어야 한다.¹⁾ 그렇지 않다면 농촌교회가 오늘 농촌의 쓸쓸함에 묻혀서 때로 자기의 정체성을 제대로 드러내지 못하는 것에 대한 답을 찾는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농촌교회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일이요, 하나님의 행동의 결과임을 인식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는 농촌교회의 역할은 역동성을 상실할 수밖에 없다. 농촌의 모든 어려움까지 담담하게 껴안는 역동성을 잃는다면 농촌교회는 교회 자체의 성장만을 갈망하는데 머물

1) 게오르크 F. 휘체덤, 박근원 역, 『하나님의 선교』(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93), 15쪽.

수밖에 없다.

사실 다수 농촌교회는 그동안 성장에만 초점을 맞추어 온 한국교회의 모습을 답습함으로 농촌선교의 구체적인 요청에 응답할 방법을 잃어버렸고, 이제는 그나마 현실적인 이유로 성장마저도 꿈꾸기 어렵게 되었다.²⁾ 문제는 그동안 포기해야 할 성장만을 붙들고 있다 보니까 교회의 목표도 막연해졌다는 것이다.³⁾ 그동안 한국교회의 목회방법론, 또는 목회세미나들이 도시적 성장을 향한 획일화된 부분에 많이 쏠리다 보니 그것을 그대로 적용하는 농촌교회는 늘 갈등을 안고 갈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제라도 농촌교회는 농촌을 향한 하나님의 선교에 순응하여 오늘 이른바 신자유주의 시장경제 속에서 더욱 소외당하는 농민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농민은 물론 농민이 아닌 사람들에게까지도 바로 알려주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농촌교회는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의 일이라는 자각을 선행해야 한다.

교회가 교회 자체만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존재하는 지역 속에서 지역을 위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교회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봉사이다. 치욕, 차기부정, 십자가, 그리고 죽음을 지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루어진 모든 일은 봉사라는 낱말 속에 요약되어 있다.⁴⁾

2) 한국교회에서 성장은 인구수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런데 농촌 인구를 보면 1960년에 총인구의 58%였던 농가인구가 1980년 28%로, 1990년 15.5% 그리고 2000년 8.6%로 급격히 감소하고, 2009년엔 6.4%까지 내려갔다. 2011년 농가인구는 296만5,000명으로 조사됐는데, 감소세는 계속돼 2017년 253만2,000명, 2022년에는 219만1,000명까지 낮아질 전망이다. <2011년 농업경제연구원 통계자료 인용>

3) 농촌교회의 어려움은 재정적인 것이 크지만, 그것은 농촌의 현실 속에서 어쩔 수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상당수의 농촌교회는 농촌에 있음에도 지역에 대한 교회의 역할보다는, 어떻게 보면 막연한 교회성장에 더 지대한 관심을 쏟아왔음을 부인할 수 없다. 이것은 목회자의 신앙과 신학에 기인한 것이지만 그로 인해 더 힘이 든 것만은 사실이며, 나아가서 지역의 관점에서는 지역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교회로 비칠 수밖에 없다. 이것이 농촌교회 어려움의 시작이라 할 수 있다.

4) J. C. 호켄다이크, 이계준 역 『흩어지는 교회』 (서울:대한기독교출판사, 1992), 167쪽.

농촌선교를 위해 농촌교회가 보여줄 수 있는 것은 농민들 가운데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일인데, 이것은 바로 지역을 향한 교회의 봉사로 나타난다. 그러므로 아무리 어려운 현실이고 또 힘에 벅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농민들은 언제나 교회의 '섬김을 받을 필요'가 있는 사람들이다. 비록 어렵고 힘든 농촌이지만 교회가 자기 역할에 충실할수록 언제나 선교의 정당성은 살아 있다. 이것을 잊어버릴 때 변화의 요구에 무감각해지고, 선교의 정당성도 상대적 박탈감 앞에서 할 말을 잃게 되는 것이고, 오히려 교회가 '섬김을 받을' 존재로 남게 된다. 무엇보다도 교회는 성경에서 볼 수 있는 농업과 토지를 기반으로 한 인간의 자유와 평등 그리고 지속가능한 사회의 희망을 농촌에 대비시킬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노동과 자연과 생태의 성서적 의미, 복음과의 관계 속에서 전인적인 인간과 평화라는 주제가 농촌에서 시작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기틀을 세워가야 한다.⁵⁾

교회가 자기의 본래 과제인 선교를 유효하게 실천하는 문제는 확실히 교회가 지닌 희망의 성격에 달려 있다. 이에 수반하여 또한 당연한 귀결로서 그 희망의 성격이 선교의 성격을 크게 결정한다.⁶⁾ 어둠 속에서도 갖는 희망의 성격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잘 보여주신 것이 아닌가? 교회는 복음을 선포하는 오늘의 상황 속에서 듣고 본 것을 보여줌으로 희망의 실현, 곧 기대의 기능을 심어줄 수 있다. 농촌교회는 그 터전을 농촌과 농민의 삶 자리에서 찾아야 한다. 농촌교회가 분명히 자신의 길을 간다면 비록 농촌의 현실이 참담하고 어려워도, 농촌교회는 희망의 빛을 비출 수 있다.

2. 보령시 천북면 지역과 시온교회

5) 민들레공동체 20주년 기념자료집, 139쪽.

6) J. C. 호켄다이크, 이계준 역 『흠어지는 교회』 (서울:대한기독교출판사, 1992), 18쪽.

1) 천북면의 특성

시온교회가 있는 보령시 천북면 신죽리는 천북면에서도 외곽지역에 속해 있어서 그야말로 변두리에 속한 황량한 농촌이다. 교우들은 대부분이 농민들로 주로 경종농업(갈이농사)에 종사하며 몇 가정은 축산업을 하고 있다. 천북면의 농업은 전체적으로 경종농업이 54%, 축산업이 27%에 달한다.⁷⁾ 시온교회가 있는 천북면은 서해안고속도로(광천IC)와 연계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축산 밀집지역으로는 면 단위 중 규모가 가장 큰 지역에 속한다. 양돈이 주축을 이루면서 한우와 젖소, 그리고 양계농장이 산재해 있는데 축산업이 주종을 이룬 관계로 천북면은 여타 농촌과 비교하면 농촌 경제 활동이 제법 규모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반대로 미국과 유럽연합 등과 FTA 체결로 말미암은 농축산물 수입 개방화의 직접적인 파고를 맞고 있으며, 축산으로 인한 부작용으로 쾌적한 농촌 환경에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때때로 발생하는 축산 특유의 냄새 등은 지역의 고민거리이다.

시온교회가 위치하고 있는 천북면 신죽리의 인구 및 가구 현황을 보면, 2010년 현재 156세대에 인구수는 341명이다. 인접한 신덕리는 124세대에 인구수는 278명이다. 그런데 이런 통계는 행정적인 통계일 뿐이고 실제 거주자는 그보다 훨씬 적다는 것이 각 마을 이장들의 이야기이다. 참고로 천북면 전체 세대수는 1,861세대에 인구수는 4,366명이다(이 또한 행정적 통계이다). 천북면 전체적으로 교회는 12개(주로 장로교회와 침례교회)가 있으며, 신죽리와 신덕리에는 그중 3개 교회가 있다. 시온교회 교우 현황은 주로 신죽리와 신덕리에 거주하는 장년 100여명, 교회학교 아동부 20명, 중고등부 10명 정도이다. 장년의 주축은 50대와 60대이며, 70대 이상이 구성원의 35%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2) 농촌교회로서 시온교회

7) 보령시 천북면사무소 2010년 통계자료 인용. 이하 천북면 인구 통계도 동일.

시온교회는 농촌교회로서 45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시온교회에서 목회자인 나는 1993년 8월 26일에 부임해서 지금까지 이 지역에서 살고 있다. 나는 도시에서 태어나 도시에서 공부하고, 도시에서 결혼하고 도시에서 목회를 하다가 농촌으로 왔다. 농촌을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생면부지의 농촌교회인 시온교회에 오게 된 것은 이 지역에서 이미 목회를 하고 있던 절친한 선배가 소개를 해줘서 같이 이웃하면 좋겠다는 것과, 교회가 위치한 야트막한 산언저리 숲이 좋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처음부터 어떤 꿈을 안고 농촌목회를 하려고 온 것은 아니었지만, 이 지역이 농촌이기 때문에 여기에 걸맞은 목회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었다.

부임 초기 시온교회 모습은 오래된 농촌교회가 대체로 그렇듯이 정해진 틀 안에서만 움직이는 모습이였다. 건물이 낡은 것은 그렇다 쳐도 교회의 힘을 한 곳으로 모을 수 있는 체계적인 바탕이 아직 갖춰지지 않았고, 변화를 위한 노력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랐다. 농사는 밭 위주로 하고 그중에서도 배추 농사를 가장 많이 짓는데, 배추 값이 형편없이 떨어져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묵묵히 인내하는 모습은 지켜보기가 힘들었다.

그렇지만 시온교회는 농촌교회로서 농촌의 고민을 같이 나누기 위해 노력해왔다. 밑에서 다시 이야기하겠지만, 문화적인 역량을 키우면서 지역민들과 함께 농촌축제를 만들어 왔으며, 지역의 구심점 역할을 하는 농촌학교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과 건강한 농업을 장려하고 유쾌한 농촌 환경 만들기 위해 지역민들과 머리를 맞댔다. 돌아보면 결과는 참으로 미미하고, 또 교회는 자신들의 구별된 신앙으로 말미암아 지역민들과 보편적인 친밀감을 나누기에 약간의 어려운 점도 있었지만, 아무튼 그동안 시온교회는 지역공동체의 일원으로 농민들과 함께 호흡하기 위해서 한 걸음씩 길을 걸어왔다.

거의 모든 농촌교회가 처한 상황이지만, 시온교회도 교우들의 노쇠화 현상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또한 때로 현안에 대한 목회자와 교우들의 생각이 달라서 진행속도가 잠시 지체되는 일도 있고, 그리고 종교에 대한 농촌사회의 폐쇄성은 교회의 역할을 알게 모르게 위축시키는 일들도 있

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민들의 교회에 대한 호감은 높아지고 있으며, 교우들 또한 하나님께서 직접 선교하시는 일에 우리는 증인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주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다.

3. 농촌선교를 위한 문화적 접근

1) 문화사역의 시작

시온교회가 지향하는 방향 가운데 하나가 문화사역이다. 문화사역이라니까 거창한 것 같고 많은 자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특별한 것은 아니다. 시온교회가 갖고 있는 감성을 통해 농촌의 감흥을 두드리고, 나아가서 그 문화를 통해 교회의 역할과 지역경제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이다. 보통 농촌에는 문화가 사라졌다고들 한다. 사실 요즘 농촌은 예전에 가지고 있던 많은 것들이 사라지고 있지만 그러나 사람 사는 곳에 어찌 문화가 없을까? 이런 생각에는 미디어의 영향으로 도시적인 것만을 문화로 치부하는 경향도 있을 테고, 인구 감소로 말미암아 학교와 마을공동체가 위축되니 공동문화의 생산이 없어지는 탓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본래 농촌이 가지고 있는 모습 자체가 훌륭한 문화라는 것을 다시금 깨달아야 한다. 그 가치를 깨달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농촌선교의 시작이고, 희망의 시작이라는 생각에서 시온교회는 문화적 접근에 작지만 나름의 힘을 기울였다.

시온교회는 19년 전부터 영상물을 활용하기 시작했다. 이는 마을 사람들의 발걸음을 교회로 옮기게 하려는 의도도 있었지만 아무튼 그 당시 농촌교회로서는 상당한 가격을 주고 빔 프로젝터를 구입해서 마을 극장 역할을 하기도 했고, 교회학교 아이들에게는 피아노를 비롯한 음악 교실과 전국 각지의 문화여행을 통해서 문화적인 감각을 키워주었다. 문화여행은 박물관, 드라마촬영 현장, 인사동 거리, 방송국, 공연장, 축구 야구 농구 등 프로스포츠 경기 관람, 전국적인 지역 명소 등 다양한 곳을 다녀왔다. 그리고 컴퓨터를 가르쳤다.⁸⁾ 컴퓨터 강사는 내가 직접 했는데, 두 개를

배운 후 한 개를 가르치는 식이었다. 한 개를 더 알고 있는 것이 대단하다는 것을 느낀 시간들이었다. 이것은 후에 다른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도 그대로 적용되었다.

2) 농촌의 가치를 되살리는 일

무엇보다도 농촌 지역에 있는 들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들꽃을 통해 농촌의 매력을 살리려고 노력한 일은 무척 유쾌한 일이었다. 우리 지역의 산야에 많이 있는 노루귀, 매발톱, 제비꽃, 돌단풍, 금낭화, 할미꽃, 노루오줌, 꿩의 다리 등. 그리고 잡풀로 여겨 누구 하나 쳐다보지도 않던 논둑의 개불알풀까지 새롭게 각인시켜서 함께 하는 구성원이 되었다. 여기에는 특히 교우들의 역할이 크다. 무지한 목회자에게 꽃 이름 하나하나를 교육시키면서 교회에 정갈한 들꽃정원을 조성하고, 각 가정에서도 정성껏 가꾸어서 봄이 되면 그 꽃들을 모아서 들꽃축제를 열게 되었다.

그리고 각고의 노력 끝에 작은 운동장을 교회 내에 만들어 매년 11월 초에 지역민들과 함께 추수감사 잔치를 하면서 한 해 추수 결실의 기쁨을 나누고 있다. 추수감사 잔치가 처음에는 시온교회 교우들로만 행해지는 추수감사 놀이였으나, 이제는 각 마을 이장들을 중심으로 4개 이상의 마을 주민들이 교회 운동장에 모여서 스스로 만들어가는 풍년한마당으로 변하고 있다.⁹⁾ 농촌이 가진 즐거움은 특별히 교육을 받거나 외부로부터 공급을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다. 농업은 원래 흥겨움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런 흥겨움은 우리 문화의 골간이 돼 왔다. 그러므로 농민들이 흥을 돋울 수 있는 마당을 만들어주면 자연스럽게 그 모습이 나타난다.

추수감사 잔치에는 우리 지역특산물인 돼지를 비롯하여 많은 창조물품들이 풍요로움을 더해주고 있고, 노년층도 참여할 수 있도록 두부 만들기, 송편 빚기, 이영 엮기, 물동이 이고 이어달리기 등 각종 경기종목을 개발해

8) 1994년부터 2년간 서울에서 선교신학을 공부했는데, 마침 교과 과정에 컴퓨터 시간이 있었고, 또 유수의 기업이 회사 내 컴퓨터를 교체하면서 386급 컴퓨터를 다량 기증받을 수 있었다.

9) 2011. 11. 21. CBS TV 다큐멘터리 '신사도행전' 방영.

서 마을별 대항 경기를 하다보면 모두들 무척 즐거워한다. 마을사람들은 스스로 풍물패를 만들어 멋진 공연을 펼치기도 하는데, 풍물패의 공연을 보고 있노라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음식을 같이 나눠먹으면서 농촌의 문제와 우리 지역의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틈틈이 나눈다. 사실 농촌에서 여러 마을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 추수감사 잔치를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처음에는 종교적인 관점으로 교회 자체에 대한 거리낌이 있어서 교회에 오는 것을 주저했지만, 차츰 농촌에 대한 교회의 진정성을 느끼면서 여러 마을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다. 여기에는 교우들의 창의적인 발상과 이장 및 마을의 지도자 역할을 감당하는 남선교회원들의 역할이 크다.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다 보니 재정도 제법 들어가는데, 처음에는 교회에서 지원을 했지만 지금은 각 마을 별로 분담하고 또 지역 내에서도 관심을 가져줘서 교회는 식사만 준비하면 되고, 나머지는 모아진 기금으로 충당한다.

3) 농민들과 함께 여는 농촌 축제

(1) 농촌 축제의 시작

위에서도 잠시 언급했지만, 해마다 5월 초에 지역 농민들과 함께 ‘들꽃 축제’를 열고 있다.¹⁰⁾ 처음 시작은 가정마다 키운 꽃들이 너무 예뻐서 한군데 모아 함께 감상하자고 하면서부터였다. 교우들 가정에 심방을 다녀보니 각 가정마다 화분에 예쁜 꽃들을 잘 키우고 있었다. 전체 가정을 헤아려보니 제법 꽃의 개체가 많았다. 교우들은 자기 것 밖에 볼 수 없지만 목사인 나는 전체 가정의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래서 교회 마당에 야생화가 피는 시기를 골라 교우들의 화분을 모아서 사람들을 초청했는데 의외로 사람들의 반응이 좋았다.

이렇게 한두 해를 거치면서 사람의 왕래가 많아지다 보니 꽃 감상과 더불어 우리 지역에서 생산하는 농산물을 소개하는 매개체로서 자연스럽게 자리를 잡게 되었다. 충남 일원과 가까운 지역에 있는 도시민들을 초청

10) 2005년 제1회 축제를 시작으로 2012년 제8회 축제까지 이어지고 있다.

해서 우리 지역의 꽃을 감상하고 농촌에서 즐길 수 있는 체험놀이도 하면서 우리지역 농민들이 생산한 건강한 먹을거리를 먹고 나누고 판매를 하는 자리도 자연스럽게 만들어졌다. 누구나 쉽게 생각하는 들꽃이었고, 개중에는 농민들이 잡초라고 생각해서 관심을 두기는커녕 오히려 귀찮아했던 것들도 있었지만 이름표를 붙여서 한군데 모아두니 그 아름다움은 어느 야생화 전시장 못지않은 감동을 주었다.

(2) 하나님이 주신 가치의 발견

처음 들꽃축제를 하면서 특별히 천대받는 풀, 보통 잡초라고 불리는 꽃에게 많은 관심을 가졌다. 왜냐하면 우선 잡초의 끈질긴 생명력을 본받고 싶었고, 또 가만히 보니 잡초의 꽃들이 상당히 예쁘기 때문이었다. 잡초의 꽃은 상당수가 작다. 그래서 눈에 잘 띄지 않고, 환경에 적응만 하면 번지는 속도가 빨라서 애물단지로 생각하기 때문에 농민들은 그렇게 눈길을 주지 않는다. 잡초를 한자로 풀면 잡스러운 풀이 된다. 원하지 않은 장소에 난 잘못된 풀이라는 것이다. 한마디로 경제성 있는 작물의 이해와 상반되는 잡초는 없어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이다. 그러나 이것은 풀에 대한 인간중심주의적인 정의이다.¹¹⁾ 이런 인간중심주의적 정의는 신자유주의 시장경제 체제에서 농촌의 몰락을 불러왔다. 그렇지만 잡초를 사진으로 확대해서 담아보면 그 모습이 뚜렷하다. 어느 것 하나 무시할 수 없는 생명의 충만함을 담고 있고, 이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든다는 깨우침을 준다. 달개비(닭의장풀)의 멋진 사진을 본 농민이 오히려 묻는다. “이게 무슨 꽃이냐?”고 달개비라고 말해주면 잘 아는 이름에 멋쩍어하면서도 감탄을 한다. 그리고 앞으로는 달개비를 함부로 없애서는 안 되겠다는 말도 한다. 이런 가치의 발견은 농민들에게 새로운 시각을 갖게 한다. 결국 농촌목회는 농촌과 농민이 하나님께서 주신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발견하도록 돕는데 그 지향점이 있다. 들꽃축제를 통해서 얻은 깨달음이다.

11) 황대권, 『야생초 편지』 (서울 : 도솔출판사, 2003), 265쪽.

(3) 들꽃마당의 약속

지난 3회 축제에는 이엠(EM)퇴비를 사용해서 키운 모와 상추로 십자가를 만들었다. 모판을 바탕으로 상추를 십자가 형태로 심어 전시를 하면서 그 취지를 다음과 같이 썼다.

“생명농업을 향한 이엠농업 십자가 -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모와 상추는 이엠퇴비를 사용해서 재배했습니다. 모판 위의 ‘상추십자가’는 건강한 생태계와 건강한 먹을거리를 향한 우리의 기도입니다. 생명농업을 향한 ‘들꽃마당공동체’는 지속적으로 건강한 이엠농업을 해 갈 것입니다. ‘상추 십자가’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는 우리의 약속입니다. ‘들꽃마당공동체’는 한·미 FTA에 맞서 건강한 생명을 경쟁력으로 삼는 소망을 갖습니다. 진심으로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위기 앞에서 좌절하지 않고 힘을 내는 여러분의 농촌과 함께 해 주십시오.”

들꽃마당은 시온교회의 다른 이름이다. 이 이름을 아는 이들은 시온교회라는 이름과 함께 들꽃마당도 친숙하게 생각한다.

(4) ‘온새미로 축제’로 발전

그동안 사용해 왔던 들꽃축제라는 이름은 제5회부터 ‘온새미로 축제’로 이름을 바꿨다. 우선은 들꽃축제라는 이름을 사용하다 보니 우리 생각과는 달리 보기 좋고 근사한 꽃만을 생각하고 온 방문객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말 그대로 자연에서 꽃이 피는 모든 것을 들꽃이라고 여기면서 그 속에 있는 농촌의 건강한 생명을 보여주고자 했는데, 요즘 전국 도처에서 벌어지는 야생화 전시회의 영향으로 이 이름을 계속 사용하는데 문제가 있었다. 무엇보다도 2년 연속 보령시의 ‘참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사업에 선정¹²⁾되고, 상당한 액수의 사업비를 지원받아 지역 내에 있는 작은 수목원(시온교회 이원갑 장로 사유지)을 축제 장소 바꾸면서 더불어 축제 이름을 바꾸게 되었다. 그리고 축제 참석자가 늘어나면서 교회 마당에서 축제를 계속하기에는 많은 무리가 따랐다. 온새미로는 지역에서 추천해준 이

12) 2009년, 2010년 보령시 ‘참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 대상 연속 선정.

름인데 '자연 그대로, 또는 생김새 그대로' 등의 뜻을 가진 순 우리말이다. 이 말에는 우리 농촌의 가치를 그대로 보여주려는 마음이 담겨있다.

농촌의 작은 교회가 자체적으로 예쁜 꽃을 모아서 사람들에게 보여준 것이 이제는 천북면의 봄 축제로 제법 큰 모양새를 갖추게 되었다. 이를 동안 열리는 축제 예산은 대략 2,000만 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모두 지역민의 참여와 지역 내의 기관에서 후원해 주는 후원금으로 충당된다. 점차 지역의 축제로 인식하면서 관심도 그만큼 늘어나고 있는 것을 경험하고 있다. 그리고 축제를 준비하는 일이 힘든 노동임에도 불구하고 마을 이장들을 비롯한 주민들이 함께 참여하고 있는데, 사실 이런 마음들이 축제를 가능하게 하는 밑바탕이 된다. 시온교회가 전체를 총괄하면서 계획을 세우고 행사를 진행하지만, 가능하면 지역민들이 주최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유도하고 있다. 축제가 열리면 1,000여명을 훨씬 넘는 이들이 방문해서 농촌의 흥취를 함께 즐긴다. 또한 이들을 통한 상당한 액수의 농산물 판매는 지역민들에게 새로운 도전이 되었다. 가을철 농산물 판매에도 축제의 영향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다.

4) 건강한 농업으로 가는 노력

시온교회는 농촌교회이기 때문에 당연히 농업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는 방법을 연구하면서 주보에는 주간농사정보를 매주 기재하고¹³⁾, 주기적인 영농교실을 개최하여 영농에 대한 최신 정보와 지식을 전해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동안 건강한 농업을 위해 보령시 농업기술센터와 협력하여 '이엠농업' 실천을 위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고, 이엠활성액 및 이엠퇴비 활용을 도시민들과도 함께하려고 하고 있다. 이엠(EM, Effective Microorganisms)은 효모, 유산균, 누룩균, 광합성 세균, 방선균 등 80여 종의 미생물로 형성되어 있으며, 약취 제거, 수질 정화, 금속과

13) 이 일은 시온교회에 부임한 1993년부터 시작했다. 초창기에 농사정보를 얻는데 PC통신의 힘이 컸다. 그리고 이렇게 지난 19년여를 한 주도 빠트리지 않고 농사정보를 신다 보니 나름 농업에 대한 식견을 가질 수 있었고 이러한 이론적 토대는 농민들과 대화하는데 큰 힘이 되었다.

식품의 산화방지, 음식물 처리에 효과가 아주 좋다. 그동안 보령시농촌기술센터의 지원 아래 이엠농업으로 생산한 우리 지역 대표 농산물인 배추를 이엠절임배추로 만들어 전국적으로 판매를 하고 있다. 지난 몇 년간 인터넷 오픈마켓에서는 김장철 판매량에 있어서 우수한 성적으로 상위권을 기록하고 있고, 보령시 관내 농민들의 절임배추에 대한 관심을 촉발하는 계기가 되었다. 영농교실을 진행하면서 때로는 외부 강사보다도 교우들이 스스로 강사가 되어 체험에서 나오는 영농기술을 나누기도 한다. 친밀한 이들의 이야기는 영농 현장에서 더 구체적인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현재 들꽃과 야생초에 관심을 가지면서 봄 농작물의 대체품종의 하나로 연구하고 있고, 농산물 직거래의 중요한 매개체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그리고 도시교회와 시온교회가 속해 있는 신죽리 마을 간의 농축산물 직거래를 위한 일교일촌(一教一村) 사업을 시작했다. 일교일촌은 농협에서 하고 있는 일사일촌을 우리식으로 부른 이름이다. 실제로도 농협의 주관 하에 일사일촌 준칙에 따라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동안 많은 도시교회들이 농촌교회와 직거래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관계를 맺어오고 있지만 농촌현장에서는 마을과 무관한 교회 내의 일로만 치부되기 일쑤였다. 그래서 도시교회 담임목회자와 농촌마을의 이장이 직접 협정(MOU)을 맺고 직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교회 대 교회 관계도 좋지만, 좀 더 넓은 틀에서는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일교일촌 운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농촌에서 농촌교회의 선교를 도와줄 뿐 아니라 도시교회의 농촌 이해를 돕는 일이기도 하다.

5) 농촌 체험 기반 시설 건립

마을 내에서는 지역에 대한 교우들의 열정이 시온교회가 있는 신죽리를 녹색농촌체험마을로 선정되게 했고,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지원받은 예산으로 농촌체험관을 건축했다.¹⁴⁾ 체험 마을 이름은 축산과 건강한 채소

14) 2008년 12월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녹색농촌체험 마을로 지정받아 싹지단체

를 결합한 ‘쌈지돈마을’로 정했다. 체험관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도시민들이 다양한 농촌 체험과 특히 농촌이 가지고 있는 본래의 문화적인 활동들을 즐길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최근에는 행정자치부로부터 정보화마을로 선정되어서 마을 주민들의 컴퓨터 교육과 함께 인터넷을 통한 지역 소개 및 농산물 판매를 위한 전자정보 사업을 구축했다.¹⁵⁾ 현재 시온교회는 녹색농촌체험마을 체험관과 보령시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현장인 온새미로 수목원과 긴밀하게 연계돼 있는데, 두 곳 다 시온교회 장로들이 대표로 있으면서 지역을 위한 헌신과 봉사를 하고 있다. 2010년에는 보령시의 친환경농업시범마을로 선정¹⁶⁾이 돼서 지원받은 상당한 예산으로 4개 마을을 대상으로 친환경농업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친환경농업 인증을 받는 일을 도왔고, 미생물 비누를 만들어서 보급을 했으며, 친환경농업을 위한 교육에 지역민들을 참여시켰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시온교회는 지역적으로 천북면 내에서 나름대로 지역민들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교회가 되었다. 많은 분들이 교회의 프로그램에 접하면서 예배당을 드나들고, 선진 농촌 견학을 비롯한 관광을 함께 가고, 지역 발전에 대한 교회의 의견을 경청하면서 목회자와 교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교회와 지역이 함께 움직이는 일이 참 중요하다. 여러 생각을 공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교육이 중요한데, 농촌의 특성상 특별한 장소와 시간을 내서 교육을 하기에는 한계가 많다. 그래서 그동안 함께 관광을 간다든지, 또는 축제 준비를 한다든지 하는 시간 속에서 미리 교육의 내용을 준비해서 지역민들이 지루해 하지 않고 오히려 배우려고 하는 자리를 만들었다. 교육의 내용은 선진농촌에 대한 도전과 건강한 농업으로 방향 전환, 자원봉사 참여, 농촌문화의 활성화, 그리고 농산물 직거래에 관한 것들이었다.

험마을 체험관 건립.

15) 2011년 12월 행정자치부로부터 정보화마을 지정. 쌈지촌정보화교육장 건립. 체험마을과 정보화마을의 중심은 시온교회 박동규 장로이다.

16) 2010년 보령시 지역농업 특성화(EM농업) 친환경 시범마을 선정.

6) 지역공동체의 일원으로 함께 하기

(1) 위기에 선 농촌학교

시온교회는 지역공동체의 문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특별히 농촌지역의 기반이 되는 학교의 존재 문제는 더 그렇다. 현재 교육당국의 지역 초등학교의 통폐합 방침¹⁷⁾에 대해서 목회자 스스로 초등학교 스쿨버스 기사를 자원해서 아이들의 등하교를 위해 하루에 2시간 정도 차량을 운행하고 있다.¹⁸⁾ 원래 2005년부터 지역 초등학교¹⁹⁾가 학생 수 감소로 말미암아 2010년경 면소재지 초등학교와 통폐합되는 것으로 예정돼 있었다. 그러자 지역주민의 염려와 특히 학교가 없어지는 것을 우려해서 미리부터 자녀를 읍내학교로 전학시키려는 학부모들의 동요가 생겨났다.

무엇보다도 통폐합대상학교가 되니까 학교 자체가 교육청으로부터 기본적인 지원 외에는 모든 지원이 줄어들어서 학교 본래의 교육을 기대하기 어렵게 되었다. 그렇지 않아도 자꾸 줄어들고 없어지는 농촌의 현실에 지역공동체의 기반이 되는 학교마저 없어지면 문제는 무척 심각해진다. 농촌교회 입장에서도 미래를 위해 준비해야 할 중요한 선교기반을 잃게 되는 것이다. 이래선 안 된다고 생각하고 학부모 긴급회의를 거쳐서 일단 시온교회에서 운영하던 공부방을 초등학교 방과후학교로 전환시키고, 교회차량을 동원해서 아이들의 등하교까지 맡게 되었다. 일 년 후부터는 아이들 등하교에 학교동창회에서도 적극 참여해 통학구간을 절반으로 나눠 차량운행을 하고 있다.²⁰⁾ 이런 노력의 결과로 학교 운영이 어느 정도

17) 2009. 8. 26.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발표한 '적정규모학교 육성 방안'(농산어촌 소규모학교 500여개 통폐합 추진) 참조

18) 이 일은 2012년 현재 6년째 이어지고 있다. 스쿨버스 운행은 처음엔 교회차량으로 시작했으나 차량이 노후 돼서 2011년부터는 보령시로부터 12인승 승합차량을 지원받아 하고 있다.

19) 충남 보령시 천북면 낙동리 낙동초등학교(2012년 62회 졸업생 배출)

20) 동창회는 사단법인 낙동회를 만들고, 보령화력으로부터 34인승 통학차량을 지원받아 운용한다.

정상을 되찾기 시작했고, 오히려 작은 학교의 장점이 부각되기 시작하면서 읍내 학교에 다니던 아이들이 전학을 오기 시작했다.

현재 50명을 조금 넘는 숫자로 인해서 여전히 통폐합 대상학교 순위에 올라 있지만 농촌 학교의 중요성은 말할 필요도 없을 만큼 크기 때문에 학부모와 지역주민들과 함께 학교 살리기를 계속하고 있다. 학교에 관한 이야기는 KBS에서 2부작 TV 다큐멘터리와 라디오 드라마로 제작해서 전국에 방송한 바 있다.²¹⁾ 다큐멘터리 촬영을 하면서 만들어진 전교생합창단은 이후로 농촌학교만이 할 수 있는 공동체 교육형태가 되었고, 피아노를 비롯한 바이올린 등의 음악교육²²⁾, 그리고 헌신적인 선생님들에 의한 미술교육 등 아이들 하나하나가 진지한 교육의 수혜 대상이 되는 학교가 되었다. 한 학년에 7-9명으로 편성된 한 반이 전부지만, 오히려 누구 하나 소외될 수 없는 분위기 때문에 전 학년이 공부도 우수한 성적을 보여 주고 있다.

(2) 미래를 만들어 가는 일

사실 학교 살리기는 학교를 꼭 지켜야 한다는 생각에서 출발한 것은 아니었다. 어쩌면 작금의 농촌 현실에선 농촌학교의 폐교를 끝까지 막아낸다는 것은 불가능한 이야기일 것이다. 그렇지만 현재 농촌에 수십 명에 달하는 아이들이 있고, 이 아이들이 있는 이상 행정편의주의로만 학교를 없애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었다. 그래서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는 동안 교육을 위해서 예산이 부족하면 교회에서 또는 동창회에서라도 일정부분 충당하고, 또 지역 내에서 재능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재능으로 아이들에게 다가가고, 몸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몸으로 하자는 것이었다. 학교가 언제나

21) 2009. 10. 3. KBS TV 다큐멘터리 '천상의 수업' 1부. 2011. 1. 3. '천상의 수업' 2부 방송. 2011. 11. 19. KBS 라디오 드라마 '그 남자의 귀향'(드라마 KBS무대)

22) 피아노와 바이올린 등 예능교육은 지역주민들이 방과 후 학교 교사로 적극 참여해서 진행하고 있다. 지역주민들이 교사가 되니까 큰 변동 없이 부모의 마음으로 아이들을 가르친다.

지 존속될지 지금은 모르지만 설령 학교가 나중에 폐교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땐 오히려 지나온 시간들을 감사 할 수 있으리라 여겼다.²³⁾

아무튼 바쁜 일과와 또 육체적으로도 힘든 일이기는 하지만 스쿨버스 기사 노릇을 하면서 지역 내의 다양한 사람들과 소통의 기회를 더욱 넓힌 것은 참으로 목회의 중요한 자산이 되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일을 하고 있다는 동질성을 갖게 만들었다. 학부모들은 시온교회 교회학교를 또 다른 지역학교로 인식해서 멀리서도 자녀들을 교회학교로 보내주고, 특별한 프로그램은 재정적인 후원도 함께 하고 있다. 이런 일들은 앞으로 아이들을 위한 지역 문화학교(주말 들꽃학교)를 만들기 위한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리고 학교 외에도 면사무소를 비롯한 농협, 우체국 등 지역 내 기관들과 함께 지역의 현안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같이 나누고 있고, 새마을지도자회를 비롯한 여타의 단체들과 지역 발전의 청사진을 만드는 일에도 동참하고 있다. 농촌 면(面)단위 지역의 문제는 비교적 명확하다. 면내의 사안에 대해서는 대체로 모든 사람이 알고 있거나 관심이 많다. 그러므로 지역 문제에 교회가 관심을 갖는 것은 당연하고, 지역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교인들과 함께 지역민들과 협력 관계를 만들어가는 일은 반드시 필요하다.

4. 시온교회의 목회 활동

목회를 하면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은 교우들이 농민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을 갖게 하는 일이다. 이 일은 참으로 어렵다. 오랫동안 큰 변동이 없는 한 지역에서 살아오다 보니 교우들끼리 서로 알게 모르게 갈등이 있는 경우도 있다. 이런 갈등을 끄집어내서 서로를 바로 바라보게 하고,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마을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는 일은 긴 시간을 요한다. 그리고 어떤 일을 할 때, 농민이 갖는 단순성은

23) 학교 살리기에 관해서 영상물로는 CGN TV 2010. 9. 13. '빛과 소금' 204회 편에서 볼 수 있다.

성질 급한 목회자에게는 심난한 일일 수 있다. 그러므로 결코 조급해 하지 않는다. 그래서 목회 활동에 문화적인 접근을 많이 한다. 영화나 미디어 활용은 말로 다하지 못한 것을 전해주고, 후보에 쓰는 칼럼으로 차분히 해야 할 이야기를 하기도 한다. 목회를 위해 어떤 문화 양식을 차용할 것인지 고민하는 것이 목회 활동일 때도 있다.

1) 공동식사

시온교회에서 중요한 일 중 하나는 공동식사이다. 주일 오전예배를 마치면 예배실은 바로 공동체 식당으로 변모한다. 예배실이 식당으로 변하는 이유는 첫째, 시온교회는 아직 식당이 없다. 둘째, 공동식사를 통해서 함께 예배드린 일을 좀 더 누리기 위해서다. 셋째, 매주 식사 봉사자들이 음식을 나르고 치우는 일을 통해 섬김의 훈련을 하기 위해서다. 이 일은 주로 남성들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

예배실에는 4명씩 앉도록 개인의자와 탁자가 놓여 있는데, 주일 오전예배 마지막 순서인 축도를 마치면 교우들은 탁자 2개를 붙이고 8명씩 둘러 앉는다. 떼제(taize) 성가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를 함께 부른 후 식사 준비를 한다. 음식이 올 때까지 담소를 나누면 식사 봉사자들이 음식을 나르고 식사 후에는 치우는 일까지 한다. 이 일은 14년 넘게 계속하고 있는데, 시온교회 남자 교우들에게는 자연스런 섬김의 훈련장이 된다. 그리고 이렇게 작은 훈련이 모여서 축제와 가을걷이 잔치 등에서 귀한 봉사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2) 정기심방

또 하나 중요한 일은 정기심방이다. 심방은 여느 교회도 다 하고 있는 것으로 특별한 것은 없다. 다만 시온교회는 매년 봄 심방과 가을 심방을 하는데 날짜가 정해져 있다. 심방은 3월과 9월 셋째 주간부터 대략 3주간 이루어지는데, 이는 봄배추와 가을배추를 심은 직후로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시온교회의 구역은 마을 단위로 이뤄져 있어서

구역별 가정 수가 동일하지는 않다. 전체를 8개 권역으로 나누어 구역으로 삼고 있다. 심방대원에는 모든 제직들이 하루씩 참여한다. 그래서 4년 정도면 8개 구역인 시온교회 교우의 각 가정을 방문할 수 있다. 여러 마을들을 돌아보면서 마을 발전을 이야기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정기심방이다. 심방 자리에서는 교회 안에서보다도 격의 없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교우들과 함께 농촌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발전적인 이야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정기심방은 이런 점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마을을 구체적으로 돌아보는 좋은 기회이기도 하다.

3) 예 배

예배는 한국교회의 보편적인 예배 형태를 따르고 있다. 주일 오전예배는 위에서 말한 대로 공동식사까지 연결하고 있고, 주일 저녁예배는 찬양을 배우고 부르는 일에 중점을 두는데, 저녁 시간이 집회의 성격을 띠기 때문에 목적에 따른 영화를 보기도 하고, 영농세미나를 하기도 하고, 선교사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때때로 차를 한 잔 나누기도 한다. 주일 오전예배 설교는 가능한 교회력 성서일과²⁴⁾를 따라서 하고 있고, 환경주일이나 절기주일일 때는 환경과 농업의 중요성, 건강한 공동체와 농촌의 미래에 대해서 언급한다. 수요일 저녁 시간은 성경공부 시간으로, 성경을 공부하면서 농민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지역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고민한다. 새벽기도는 인도자 없이 한다. 농번기에는 농사짓는 일이 힘에 부치고, 겨울에는 먼 거리를 걸어오는 일 쉽지 않아서 일 년에 일주일씩 하는 두 번 정도의 공동 새벽기도 시간을 제외하고는 개인적으로 새벽기도를 자유롭게 한다.

4) 주 보

주보는 총 4면으로 발행하는데, 바깥부분인 1면은 ‘목회자 칼럼’을 싣고, 4면은 ‘건강이야기’와 ‘주간 농사정보’를 싣고 있다. 목회자 칼럼은 농촌에

24) 2012년부터는 ‘총회 교회력과 성서정파’를 따른다.

대한 고민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많이 다루고, 건강한 생태계와 친환경 농업을 일구는 일을 응원하고 있다. 건강이야기는 농촌 현실에서 꼭 필요한 건강 상식과 실천을 담고 있고, 주간 농사정보는 그 주간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농사정보를 취합해서 신는다. 주보 안 부분인 2면과 3면은 예배 순서와 교회 소식, 그리고 그림을 동원한 신앙 이야기를 신는다. 이렇게 매주 읽을거리가 있는 글을 써서 주보를 꼬박 채우는 일을 19년 째 하고 있다.

5) 교회학교

교회학교는 중·고등부와 통합부가 있는데, 중·고등부는 토요일에 이웃 교회와 연합해서 모이고, 통합부는 중·고등부와 아동부가 주일 오후에 함께 모인다. 통합부를 둔 이유는 교사 부족과 아이들이 줄어드는 농촌의 현실에 기초하고, 또 공동체 교육을 위해서이다. 중고등부는 10여명, 아동부는 20여명을 조금 넘는데, 통합부 활동을 통해서 언니와 동생이 함께 하는 수직적인 공동체성을 함양하는 일을 배운다. 교회학교 활동은 예배와 예배 후 프로그램으로 나누어진다. 예배 후 프로그램은 대체로 미디어를 이용하거나 농촌 환경을 이용한 문화적 놀이가 많다. 그동안 문화여행과 더불어 농촌 자연을 통해서 성경을 공부하고, 다양한 체험 활동을 도입했다. 그리고 이 시간에는 시온교회가 관여하고 있는 초등학교의 주말학교 성격을 띤 프로그램을 같이 진행하기도 한다.²⁵⁾ 이때는 지역 아이들이 함께 참여해서 같이 활동을 하고, 학부모들도 원활한 진행을 위해 협력을 한다. 아이들이 갈수록 줄어들어 안타까움이 크지만, 교회학교 활동을 지역 학교와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농촌지역의 특성이기도 하다.

6) 선교

교우들은 선교헌금을 작성해서 해외선교와 지역선교를 돕는다. 해외선

25) 주말학교는 초등학교 학부모회 참여 사업 일환인데, 교육청으로부터 경비를 지원 받아 진행한다. 주일 오후에 진행 할 때는 인근 지역의 아이들과 학부모들이 함께 참여한다.

교와 미자립교회를 돕는 선교는 작성한 헌금을 모아서 보내고, 지역선교는 선교헌금 사용과 함께 주어진 재능에 맞는 봉사를 한다. 온새미로 축제 준비는 물론이고, 지역학교를 돕는 일, 체험관 운영과 수목원 개방, 영농교육 등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모습으로 지역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한다. 시온교회는 농촌의 아주 구석진 곳에 있어서 사실 전도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교우들의 모습을 보고 새로운 사람들이 교회에 나온다.

이상의 시온교회 목회 활동을 정리하면 크게 두 가지 특성을 갖는다. 하나는 한국교회가 취하고 있는 보편적 목회 형태를 준수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정해진 틀 안에서 지역 주민들과 함께 하려는 시도를 하는 것이다. 교회력 준수와 교단의 지시사항을 따르는 목회 활동은 매년 큰 변동 없이 행해지고 있다. 그리고 가능하면 주일 저녁 집회 시간을 이용해서 영농세미나라든지 영화와 다큐멘터리 감상 등 지역 주민들과 함께 하는 시간을 마련하고 있다. 이때는 시작할 때 성경을 읽고 설교하는 시간을 짧게 갖는데, 설교는 농촌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관점에 초점을 맞춰 지역 주민들도 경청할 수 있게 한다. 공동식사의 틀은 가을에 하는 풍년 한마당 잔치로 이어지고, 정기심방은 마을 주민들의 삶을 돌아보는 기회로 삼기도 한다. 교회학교는 농촌에서 아이들이 전체적으로 줄어들고 있지만 교회 내에서 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지역 학교와 연계하여 교회학교에 나오지 않는 지역의 아이들, 그리고 학부모들과 함께 어울려 공동체 활동을 하고 있다.

5. 시온교회에서 바라 본 농촌선교

1) 농촌을 이해하는 선교

농촌의 변화는 교회의 노력으로만 되는 것은 아니다. 여기에는 당연히 지역 지도자들이 있어야 하고, 교회는 한 마음으로 지역 지도자들과 함께

하면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목회자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능동적으로 움직여야 한다. 시온교회는 교인들도 그리 많지 않고, 재정도 약해서 눈에 보여줄 수 있는 일을 하기가 어렵다. 다만 부단히 함께 움직이는 진정성으로 말미암아 지역을 사랑하고 지역을 위해서 움직이는 교회라는 인식이 지역민들에게 각인이 되고 있다.

사실 목회는 도시나 농촌이나 할 것 없이 지역 상황에 맞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말할 나위가 없을 것이다. 도시교회도 그렇지만 특히 농촌교회 목회자는 농사꾼이 되지 않더라도 농업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특히 지역문화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한다. 동질성과 이질성을 확실히 알지 못한 채 스스로 오해에 빠진 목회는 농촌생활을 힘들거나 지루하게 만들어 버린다. 지루하거나 할 일이 별로 없는 목회에 동기부여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은 당연한 상식일 것이다.

“열심히 하는 사람보다 즐기는 사람을 당할 수 없다”는 말을 농촌목회에 적용시킬 때 농촌교회, 그리고 농촌목회의 길을 알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즐기는 목회는 어떤 특별한 일을 한다는 것보다 보편적인 일에서 시작된다. 보편적인 일이란 대체로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일 것이다. 눈여겨보지 않은 일이었다고 할지라도 한 두 사람에게 의해서 그 안에 있는 생명력이 드러날 때 그 영향력은 대단히 크다. 시온교회는 작은 들꽃을 통해서 그러한 일을 실감하고 있다. 그러므로 어떤 농촌교회라도 문화 생성의 주도권을 가질 수 있다.²⁶⁾

구체적인 선교의 틀을 갖추기 위해서는 먼저 교회가 가지고 있는 구성원(목회자 포함)의 역량과 지역의 역량을 파악해야 하고, 앞으로 시간을 가지고 키워나갈 가능성 있는 역량까지도 파악해야 한다. 특히 지역역량 파악이 중요하다. 농촌교회에서는 교회의 역할이 교회 내에서만 이루어지

26) 일례로 시온교회와 가까운 천북면 빙도교회는 교우들의 수가 많지 않고 그나마 노년층이다. 그럼에도 목회자와 목회자 부인은 지역에 대한 꿈을 키우고 있고, 특히 목회자 부인은 마을 이장으로 활동하면서 지역을 이끌고 있다. 2010년에는 마을을 녹색농촌체험마을로 지정받아 농립부로부터 받은 4억 원의 예산으로 숙박형 체험관 건립과 아름다운 생태마을을 가꾸는 사업을 벌였다.

는 것이 아니고 지역과 함께 호흡을 맞춰나가는 지역 공동체 구심의 기능도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지역의 역량 파악과 앞으로의 가능성을 찾아내는 일이 중요하다.

열악한 농촌교회의 현실에서는 교회 자체만의 역량이 그리 크지 않기 때문에 교회 내의 역량만을 보고서는 지역의 가능성을 찾아내는 일을 할 수 없다고 미리 속단해서는 안 된다. 지역사회는 선교현장이면서 중요한 동반자가 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몇 명이 되던지 교우들이 지역에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도록 목회자의 각고의 기도와 섬김과 가르침이 있어야 한다. 농촌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을 갖는 교우 한 사람의 힘은 참으로 크다.

2) 다시 도전하는 농촌목회

이제 농촌은 뒤쳐진 곳이라는 의기소침한 인식을 버리고, 갈수록 불안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사회에서 농촌이야말로 지속가능하며 참된 인간성 회복의 대안공간이며 참된 삶의 뿌리라는 확신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 농촌교회는 교회 내에서 이루어지는 교회 중심의 목회방식에서 벗어나 지역사회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농촌목회의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서 우리 농촌이 지금 농촌으로서의 위기에 직면했지만 또한 지금이야말로 새로운 농촌의 길을 만들어 가는 기회라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

(1) 농촌에서 목회를 한다면 어쨌든 농업에 관계할 것을 권한다.

가능하면 직접 농사를 짓거나, 혹은 농업경영 마인드를 배양해서 간접적으로라도 농업에 관여해야 한다. 솔직히 농촌교회 목회자는 쉼터의 개념을 가진 전원교회가 아닌 이상 농업에 관여하지 않으면 농촌목회에 대해 깊은 이해를 갖기 어렵다. 다만 농업의 개념 폭을 넓혀야 할 필요는 있다. 넓게 본다면 농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은 다 농업의 범주에 속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최근 정부의 농업 정책에는 이런 부분이

많이 반영돼 있다.

나는 직접 농사를 짓지 않는다. 노동에 대한 재능이 도대체 없다. 그러나 농업 경영의 조언과 함께 세계와 우리나라 농업의 흐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알려주고, 새로운 농업의 실천에 대한 도전을 격려하고 있다. 이런 일을 위해서 후보에 농업소식을 19년째 실으면서 매 주간 농업정보를 취합하고 있고, 필요에 따라 영농교육 세미나도 열고 있다.

(2) 농촌의 문화적 토양을 끄집어내는 시도를 할 것을 권한다.

지역민들과 함께 하는 문화적 접근을 시도하면 좋겠다. 큰 규모보다도 지역민들과 함께 재미있게 어울리는 것들이 필요하다. 두부나 인절미 만들기, 전통놀이, 전통생활을 응용한 경기 등 농촌에서는 개발할 것이 참 많다. 그리고 마을 배구단 만들기, 마을에 산재해 있는 잡초나 들꽃의 가치 개발, 지역민과 함께 여행하기, 음악(미술) 교실, 사진 찍기, 함께 영화 보기, 전시회나 발표회 등을 통해서 문화적 마인드를 개발해 간다면 단합과 더불어 새로운 창의적인 시도를 계속해 갈 수 있다.

이런 일을 위해서는 먼저 교우들과 공감의 필요가 있다. 대체로 목회자들은 조급한 편이지만 조급하지 말고 시간을 두면서 자연스럽게 지역과 교회가 해야 할 일을 이야기하고, 또 교우들의 의견도 물어봐야 한다. 목회자의 일방적인 결정은 약보다 독이 될 확률이 크다. 부정적인 의견이 나오면 그것도 인정해 주고, 좀 더 시간을 갖고 다른 각도에서 다시 이야기를 시도할 필요가 있다. 나는 주로 교우들과 밥 먹는 시간을 많이 활용했고, 자주 후보 칼럼난을 통해서 생각을 내비치기도 했다.

(3) 지역민과 친밀도를 높이고 지역의 특성을 냉철하게 파악할 것을 권한다.

노인회로부터 마을 이장(里長) 권유를 받은 적도 있지만 교우들이 별로 탐탁지 않게 생각해서 조심스레 사양하기도 했다. 우리 지역에 있는 다른 마을은 현재 목회자 부인이 이장을 하고 있는 곳도 있다. 지역에 대한

열정을 갖는 이장의 힘은 참으로 크다는 생각을 한다. 농촌에서 목회자가 이장을 하는 것은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도 소중한 일이 될 것이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일을 할 때 면사무소, 농협, 우체국 등 지역 내 기관과 유기적 관계를 갖고 있다면 생각하지 못했던 지원과 협력을 받을 수 있다. 지역 내에 있는 기업이나 지자체 농업기술센터 등의 지원을 이끌어내는 일은 생각보다 어렵지는 않다. 물론 교회 자체를 지원해 주지는 않는다. 그러나 지역과 농업에 관계된 일들은 정해진 항목을 통해서 지정된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다. 그리고 교회 내에서만 일하려고 하지 말고 같은 행정권, 이를테면 면(面) 내의 다른 지역 사람들과도 함께 일할 수 있어야 한다. 친밀해지기 위해서는 자주 만나는 방법 밖에 없다. 그냥 무턱대고 만나면 할 이야기가 없다. 그래서 그들이 하는 일에 대한 공부도 필요하다. 요즘 인터넷은 너무도 훌륭한 선생님이다. 그리고 지역의 장단점을 잘 알아야 한다. 주변 경치, 먹을거리, 농촌체험을 할 수 있는 곳 등을 잘 파악해 둘 필요가 있다.

시온교회가 있는 천북면은 축산 농민도 있고, 또한 바다에 접하고 있어서 어업에 종사하는 어민도 있다. 농업과 축산과 어업인구로 세분화 되어 있다 보니 지역 발전에 대한 이야기가 각각 다르다. 그래서 환경오염도 정화하고 친환경적인 농축산업과 어업을 위해 유용한 미생물균인 이엠 활용을 장려하고 있다. 여기에는 보령시 농업기술센터의 도움이 아주 크다. 무엇보다도 농축산업과 어업의 환경개선에 괄목할만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엠퇴비를 통해서 친환경 농업을 추구해 갈 수 있다. 현재는 축산농민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으며, 경종농업도 점차 이엠퇴비와 이엠활성액의 사용을 늘리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엠 사용에 대한 학계와 상업회사, 그리고 이미 토착미생물을 사용하는 농가들의 부정적인 의견도 많이 있지만, 복합적인 농어업을 하고 있는 천북면으로서는 최상의 방안으로 생각하고 있다. 분명한 것은 결과가 좋지 않으면 농민들은 결코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아무튼 지역의 특성 파악은 지속가능한 농촌선교의 구체적인 바탕이 된다.

(4) 세계 및 국내의 농촌 정세에 대한 판단력을 키울 것을 권한다.

인터넷이나 신문 등을 활용해서 날마다 국제 농업 뉴스나 농산물의 가격 변동 등을 지켜 볼 필요가 있다. 물론 어떤 농촌은 젊은 사람들이, 혹은 나이가 있더라도 정보에 밝은 사람들이 있어서 이런 일을 스스로 하기도 하지만, 현재 대다수의 우리 농촌은 고령화 사회가 되었기 때문에 능숙하게 정보를 접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정보화 사회에 적응한다는 것은 마을 발전을 위해서 대단히 필요한 일이다. 시온교회가 자리하고 있는 신죽리는 교우들이 중심이 돼서 정부의 정책 방향을 빨리 입수하고 거기에 맞는 사업 요청을 하고 있다. 물론 모든 사업 요청이 실제로 다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런 일이 자주 있을수록 행정기관에서도 관심을 가져주고, 또 지자체 응모 사업의 경우 좋은 점수를 얻기도 한다. 보령시의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에 2년 연속 선정된 것도 이런 이유로 인해서 가능했다.

또한 세계 및 국내의 농촌 정세에 대한 어느 정도의 판단력은 비록 전문가 수준은 아니라고 해도 나름대로 지역 농민들의 상담 역할도 할 수 있고, 새로운 농업의 길잡이 역할도 할 수 있다. 이런 일은 대단히 중요하다. 상황 판단력이 없으면 지도자의 역할을 할 수 없다. 거창한 것 같지만 책상 앞에 앉아서 날마다 정보에 대한 트레이닝을 하면 그것이 조금씩 실체를 갖춰간다. 나는 시온교회에 부임한 뒤로 19년 간 주보에 농사소식을 실으면서 PC통신부터 인터넷까지 일주일에 최소한 서너 시간씩 농사 정보를 찾는 것을 습관적으로 해왔다. 그리고 그것을 다듬어 글을 썼다. 그리고 이런 공부의 고마운 것은 농민들과 대화할 때도 그들의 이야기를 이해할 수 있는 바탕이 되었다는 것이다.

(5) 목회지에 대한 것은 하나님께 맡길 것을 권한다.

결국 이 말이 중요한 것 같다. 농촌목회는 떠날 때 떠나더라도 그것은 내가 알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마음을 편하게 갖는 것이 좋겠다. 이 일은 꼭 농촌목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아무리 여건이 좋아도

마음이 떠나 있으면 지속적인 일을 할 수 없고, 결국엔 아무 일도 되지 않는다. 농촌목회의 많은 문제가 여기서 출발한다. 주변에 보면 떠나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10년 넘는 세월을 훌쩍 보내는 목회자들도 있다. 안타까운 일이다. 어디서 하든지 현장목회에 충실해야 하는 것이 기본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 것이다. 목회지를 떠나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 일은 오늘 최선을 다하는 것이 농촌목회의 정석이라고 생각한다.

무엇보다 농촌목회에 대한 정체성 확립이 중요한데, 성장만을 중요시 여기는 목회가 아니라 본래의 생명 살리기 목회 자세를 가져야 한다. 설령 성장을 생각하더라도 농촌교회의 참된 성장은 어떤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 또한 같은 지역, 혹은 동일한 생활권에 있는 교회들과 네트워크 형성을 하고 함께 일을 하면 어느 정도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고 다양한 사역을 나눌 수 있다.

6. 결론 - 농촌선교는 하나님의 일을 받아들이는 것

사실 목회는 사업이 아니다. 그리고 정해진 길을 가는 것도 아니다.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지켜보는 것이 목회라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어떤 목회의 모습이 우월의 대상이 될 수도 없고, 기준이 될 수도 없다. 왜냐하면 내가 정말 진리를 향해서 가고 있다면 그 길은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테니까 말이다. 결국은 나의 모든 것을 사랑하는 일이다. 그것이 목회이다.

그러나 농촌목회는 영적 공허감이 자주 엄습한다. 가슴이 점점 무뎠지는 오늘의 삶은 사랑하는 일마저 형식적으로 느껴질 때가 많다. 어떻게 해야 할까? 하지만 마음이 움직일 때를 기다리다가는 마음이 먼저 냉랭하게 마비되는 고통을 당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의지적인 사랑과 실천이 필요하다. 목회는 행동으로 하나님의 일을 받아들이는 일이다. 당연히 그렇다고 생각하지만 쉽지 않다. 시간이 갈수록 어렵다. 특히나 쓸쓸한 별관 위에서 있는 것 같은 농촌목회는 더더구나 그렇다. 하지만 가기 편하게 만들어

진 길은 없는 것 같다. 용기를 내서 발걸음을 내딛어야 길의 흔적이 보인다. 여기서 파올로 코엘료가 들려주는 말을 경청할 필요가 있다.

마이애미 항구에서 함께 바다를 바라보던 친구가 그에게 말했다.

“가끔 사람들은 영화에서 본 것만을 기억하고 실체가 어땠는지는 잊어버리지. 영화 ‘십계’ 기억하나?”

“그럼. 모세 역을 맡은 찰턴 헤스턴이 지팡이를 들자 바닷물이 쪼 갈라졌고,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를 건넜잖아.”

“성서에서는 그와 달라.” 친구가 말했다.

“성서에 따르면 신이 모세에게 이렇게 명령했어. ‘이스라엘의 자녀들에게 말하라, 앞으로 나아가라고.’ 그들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나서야 모세는 지팡이를 들었다. 홍해가 갈라진 건 그 다음이야. 결국, 길을 갈 용기가 있는 자에게만 길이 열리는 법이지.”²⁷⁾

그래서 목회를 위해 진실로 용기 있게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맞닿아 있는 점점들을 계속해서 찾아내는 일이 필요하다. 오히려 내 생각으로 그 점점들을 가려버리면 곤란하다. 나를 내려놓고 기도하는 일, 이것이 농촌 선교의 시작이다. 또 하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서로를 위로하고 행동으로 하나님의 일을 받아들이기를 응원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현장에 교회가 있고 목회가 있다.

농촌의 위기는 새로운 생명의 시대로 나가는 기회이다. 이제 농촌교회는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새로운 선교방식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사랑을 바탕으로 작은 마을을 껴안으며 그 가치를 키워내고 미래를 예측하는 즐거운 상상력을 키워나가야 한다. 

27) 파올로 코엘료, 박경희 역, 『호르는 강물처럼』 (과주:문학동네출판사, 2008.), 183쪽.